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

2024 《MISTER》(맥화랑, 부산)
2022 《HESTORY》(맥화랑, 부산)
2020 《아는사람》(맥화랑, 부산)
2017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2017 《자가지유》(갤러리WOO, 부산)
2017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2015 박진성개인전 (박영덕화랑, 서울)
2013 박진성개인전 (갤러리송아당, 서울)
2012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2011 《아저씨》(갤러리FORM, 부산)
2010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2010 《상실의 도시》(CYART갤러리, 서울)
2009 《이상한서커스》(갤러리DAMI, 대구)
2009 《이상한서커스》(영광갤러리, 부산)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6-2016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25-2024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대만)
2025-2016 Kias SEOUL (COEX, 서울)
2025-2017 《10-200, 행복한그림전》(맥화랑, 부산)
2025-2017 ART BUSAN (BEXCO, 부산)
2025-2016 BAMA (BEXCO, 부산)
2025-2024 ONE ART Taipei (Metropolitan Premier Taipei, 대만)
2024-2016 대구아트페어 (EXCO, 대구)
2024-2016 BAMA (BEXCO, 부산)
2024 《INTERMISSION》(맥화랑, 부산)
2023 《PAUSE》(맥화랑, 부산)
2022-2016 울산국제아트페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
2020 ONE ART Taipei (Sherwood Taipei, 대만)
2019 ART FORMOSA (타이베이, 대만)
2019 서울국제예술박람회 (서울)
2019 《Sweet Break》박진성·한충석 2인전 (LOTTE Gallery, 부산)
2018 ART FORMOSA (타이베이, 대만)
2018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Conrad, Hong Kong)
2017 Art Kaohsiung (가오슝, 대만)
2017 《Happiness & Love》(차병원, 서울)
2017 한국조각가협회전 (금정문화회관, 부산)
2017 Harbour Art Fair (Marpocopo Hote, 홍콩)
2017 ART Formosa (타이베이, 대만)
2017 박진성 한충석 2인전 (갤러리 IN, 부산)
2017 《다른 표정 닮은 기억》(BNK아트갤러리, 부산)
2017 LA아트쇼 (LA컨벤션, LA)
2016 《Present for present》(갤러리 엘르, 서울)
2016 Art Kaohsiung (가오슝, 대만)
2016 봉산미술제 (Soo Gallery, Daegu)
2016 8085전 (Space 1326, 창원)
2016 한국의 조각가전 (석당미술관, 부산)
2016 춘천야외조각초대전 (춘천MBC, 춘천)
2016 《조각으로 꽃을 피우다》(달서구청, 대구)
2016 《조각가 그들이 만나다》(무등갤러리, 광주)
2016 한국조각가협회전 (부산시민회관, 부산)
그 외 다수.

| 작가설명 |

상처가 익숙해지면서 순수했던 눈물은 허탈한 웃음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철었던 행동으로 기억될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른이라고 말한다. 박진성 작가의 작업 안에서 《아저씨》라는 존재는 사전적 의미인 중년남성만을 뜻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아버지일수도, 남편일수도, 아니면 자기자신일수도 있는 '익명의 어른'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아이 형상에 주름과 수염을 표현하여 만들어진 특유의 인물상을 통해 가식적이지 않고 꾸밈없는 어른의 것이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가는 눈물 흘리는 인물상을 통해 가슴속에 쌓아왔던 억눌린 감정들을 표현하고, 다양한 표정과 상황묘사를 통해 행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어른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자신을 꺼내 놓을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믿는다.

| 전시서문 |

박진성개인전 《MISTER》

어린아이의 외형에 민머리, 거뭇거뭇한 수염과 깊은 주름.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작품을 바라보면 웃음부터 난다.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눈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이 보인다. 우스꽝스러운 인물 조각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다가왔다가 '아..!'하는 탄식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지만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인물들.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진성 작가의 작품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초기의 작업들이 눈에 맺힌 눈물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대변하는 아저씨가 주된 작업이었다면, 이후 같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오브제들이 등장했다. 눈물 한 방울로 대변했던 감정의 표출을 넘어, '위로, 위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브제로 확장된 작품은 최근 '풍선'과 '책'을 통해 억눌린 감정의 해소를 가시화 했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아저씨 조각에 시각적으로 풍부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번 개인전에는 부조 형태로 만들어진 '책' 위에 페인팅이 덧입혀진 '액자' 시리즈와 기존 두 명의 인물이 서로를 안아주는 《괜찮다 괜찮다》 시리즈에서 연장된 이야기의 《나와 나》 시리즈가 새롭게 출품된다. 작가는 작업을 관통하는 큰 메시지 중 하나인 '위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번 《나와 나》 시리즈는 '나' 자신이 아닌 이상 상대의 입장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발한 이야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위로'를 꿈꾸는 작업의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마주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성적 사고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 못지않게 직관과 본능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 감성의 중요성 또한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인 체면과 어른이라는 탈 속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마음 한켠에 소모되지 못한 감정의 벽을 쌓는다. 작품 속 모든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는 작가는 어른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자신을 꺼내 놓을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믿는다. 박진성 작가의 작품이 현대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박진성-행복을 위한 여정: 눈물의 카타르시스》 중 일부 발췌요약
맥화랑 큐레이터 김정원

B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Fine Arts, Busan
Completed a graduate course in fine arts, Dong-eui University.
Dong-eui University, Bachelor of Fine Arts, Busan

| Solo Exhibitions |

2024 MISTER (Gallery MAC, Busan)
2022 HESTORY (Gallery MAC, Busan)
2020 Acquaintance (Gallery MAC, Busan)
2017 (Soo Gallery, Daegu)
2017 Self-healing (Gallery Woo, Busan)
2017 (Soo Gallery, Daegu)
2015 (GalerieBhak, Seoul)
2013 (Gallery Songadang, Seoul)
2012 (gallery Soo, Daegu)
2011 Uncle (Gallery Form, Busan)
2010 (Gallery Soo, Daegu)
2010 The Lost City (Gallery Cyart, Seoul)
2009 Strange Circus (Gallery Dami, Daegu)
2009 Strange Circus (Yeonggwang Gallery, Busan)

|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2026-2016 Korea Galleries Art Fair (COEX, Seoul)
2025-2024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Taiwan)
2025-2016 Kiaf SEOUL (COEX, Seoul)
2025-2017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2025-2017 ART BUSAN (BEXCO, Busan)
2025-2016 BAMA (BEXCO, Busan)
2025-2024 ONE ART Taipei (Metropolitan Premier Taipei, Taiwan)
2024-2016 Diaf: Daegu Art Fair (EXCO, Daegu)
2024 INTERMISSION (Gallery MAC, Busan)
2023 PAUSE (Gallery MAC, Busan)
2022-2016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2020 ONE ART Taipei (Sherwood Taipei, Taiwan)
2019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9 Seoul International Art Expo (Seoul)
2019 Sweet Break: Jinsung PARK & Choongsuk HAN
(LOTTE Gallery, Busan)
2018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8 Asia Contemporary Art Show (Conrad, Hong Kong)
2017-2016 Art Kaohsiung (Kaohsiung, Taiwan)
2017 Happiness & Love (CHA Medical Group, Seoul)
2017 Busan Sculpture Festival 2017 (Busan Arts Center, Busan)

2017 Harbour Art Fair (Marcopolo Hote, Hong Kong)
2017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7 Jinsung PARK & Choongsuk HAN (Gallery In, Busan)
2017 Different Looks, Similar Memories (BNK Gallery, Busan)

2017 LA Art Show (LA Convention Center, LA, USA)
2016 Present for Present (Gallery EILE, Busan)
2016 Bongsan Art Fair (Soo Gallery, Daegu)
2016 8085 Exhibition (Space 1326, Changwon)
2016 Korean Sculptors (Seokdang Museum of Art, Busan)

2016 Invitational Exhibition of Modern Korean Sculpture
(Chuncheon MBC, Chuncheon)
2016 Flowering with Sculpture (Dalseo-gu Office, Daegu)
2016 Sculptors Meet (Mudeung Gallery, Gwangju)
2016 Korean Sculptor's Association Exhibition
(Busan Citizen's Hall, Busan)

etc.

| Collection |

Busan Western District Office, BNK, SAEWHA Hospital, DAESUN
Distilling Co., Ltd, SERVAN Industries Co., Ltd, HYOHAN Electric Co.,
Ltd, Jeonpo Yulim Norwaysup, Etc.

| Summary |

The existence in the work of the artist Jinsung Park (Ajeossi) does not refer only to a middle-aged man in the dictionary sense. A being who represents an 'anonymous adult' who may be someone's father, husband, or himself. The artist intended to capture the inner world of unpretentious, artless adults through the peculiar character created by adding wrinkles and a light mustache to a child's face. The artist expresses the repressed emotions that have been built up in his heart through the image of a tearful figure, and tries to convey a message of happiness and comfort through various facial expressions and situational descriptions. He believes that real happiness comes when he lets go of adulthood for a moment and lets out of his honest self.

| Artist Statement |

We feel that we have at last come of age when we are able to give a hollow smile to our wounds and grief and realize our beautiful memories as something immature. The more we grow up, the less we open our hearts.

(Ajeossi) in my work does not merely mean 'middle-aged man' as its dictionary definition. He represents 'an anonymous adult' who may be one's father, husband, or himself. I intended to capture the inner world of unpretentious, artless adults through the peculiar character created by adding wrinkles and a light mustache to a child's face. Tears in almost all my works stand for an honest expression of one's feelings oppressed in our society. Tears shed by adults are regarded as a sign of weakness that should be held back. These repressed tears leave contemporary people with a lot of hard feelings in their hearts. I try to express suppressed emotions through a character who sheds tears and convey the messages of happiness and solace through his diverse facial expressions and description of various situations.

I believe I could be truly happy when I disclose my true self without sticking to the trappings of adulthood. Thus, I'd like to define every tear in my works as an act for happiness.

- Jinsung PARK (2020)